

# ‘오픈런’ 부른 키즈 운동화... 매장마다 ‘대기 행렬’

### 특정 모델 수요 쏠림... ‘플미’ 등 구매 경쟁 격화 제한된 물량에 수요 증가... 현상 장기화 가능성

러닝화 열풍을 계기로 촉발된 ‘오픈런’ 소비가 스포츠 슈즈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며 유통 현장의 판매 풍경까지 바꾸고 있다. 인기 제품을 확보하기 위한 개점 전 대기하고 입고 직후 품절, 리셀 프리미엄 형성이 반복되며 수요 경쟁이 구조화되는 흐름이다. 최근에는 러닝화 중심의 수요 쏠림이 아동화까지 확장되면서 특정 모델을 둘러싼 구매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23일 오전 개점 전인 롯데백화점 광주점 정문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긴 대기 줄이 형성됐다. 개점까지 한시간가량 남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십 명이 줄을 선 상태였다.

뉴발란스 키즈의 운동화 라인인 ‘프리들 엑스(FREEDLE X)’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선 이들은 유아차를 끌고 나온 여성부터 아이를 등원시키고 달려온 학부모, 조카에게 줄 선물을 사기 위해 들선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섞

여 있었다.

뉴발란스 프리들 엑스는 운동화 구조에 샌들의 통기성을 결합한 형태로, 밴딩 스트랩과 매쉬 소재를 적용해 아이 혼자서도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한 점도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정된 입고 물량과 특정 사이즈 쏠림이 겹치면서 매장 방문 구매 경쟁이 치열해졌고, 온라인 판매는 사실상 ‘오픈과 동시에 품절’ 상태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중고 거래나 리셀 플랫폼을 통해 웃돈을 얹어 구매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 등원을 마치고 급히 매장을 찾았다는 김수연씨(39)는 “온라인은 몇 번을 시도해도 실패했다”며 “다른 매장으로 간 친구에게 재고 부족으로 못 살것같다는 연락이 왔는데, 여기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카 선물을 사기 위해 줄을 섰다는 대



23일 개점 전인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뉴발란스 키즈의 운동화 라인인 ‘프리들 엑스(FREEDLE X)’를 구매하기 위한 고객들이 줄을 서있다.

학생 박유경씨(22)도 “조카한테 선물로 주고싶어서 사라왔는데 이 정도로 치열할 거라고 생각 못했다”며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일찍 나온건데 조금만 늦었다더라면 구경도 못할 뻔 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개점 직전 배부된 번호표는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됐다. 번호표를 받지 못한 고객들은 아쉬움을 드러냈고, 순번을 확보한 이들 사이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

작했다.

오전 10시30분, 문이 열리자 고객들은 곧장 매장이 있는 층으로 이동했다. 매장 앞에는 다시 한 번 대기 줄이 형성됐고, 매장 측은 혼잡을 막기 위해 인원 통제에 나섰다. 순차 입장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들은 휴대전화로 원하는 모델과 사이즈를 다시 확인하며 대기하는 모습이었다.

매장 안 분위기는 더욱 분주했다. 진열대 앞에서는 사이즈를 확인하려는 손길이

빠르게 오갔고, 직원에게 재고 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인기 모델의 경우 진열 직후 곧바로 빠져나가며 매대 곳곳이 금세 비어갔다.

이날 풍경은 특정 매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광주 지역에는 광주신세계를 비롯해 주요 쇼핑몰과 아울렛 등 5곳의 뉴발란스 매장이 운영 중인데, 같은 날 이들 매장 대부분에서도 오픈런 대기 줄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업계에서는 입고 일정이 공유되면서 특정 날짜에 수요가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러닝과 워킹 등 생활형 운동이 확산되면서 기능성 신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여기에 브랜드 선호와 한정 수량 전략이 맞물리며 특정 제품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동화의 경우 성장 주기가 짧아 교체 수요가 꾸준하다는 점도 구매 경쟁을 부추겨 웃돈을 얹어 거래를 하는 이른바 ‘플미(프리미엄) 구매’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성인 러닝화 중심이던 수요가 아동화까지 확장되면서 매장 체감 열기가 더 높아졌다”며 “특정 모델에 소비가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는 한 오픈런과 조기 품절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브랜드 입장에서라도 공급을 급격히 늘리기보다는 제한된 물량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당분간은 지금과 같은 수급 불균형이 반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농어촌공사 ‘최고 등급’ 달성

한국농어촌공사는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다. 이번 평가는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상위 6.5%인 12개 기관만이 최고 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 95.2점을 기록했으며, 이는 준정부기관 평균인 91.4점 대비 3.8점 높은 수치다. 특히, △농촌융수관리 △농지은행사업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어촌활력증진 등 모든 조사 분야에서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다.

공사는 이번 성과에 대해 고객 중심 경영체계를 강화하고, 농어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에 힘써 온 결과로 분석했다. 나주=조희천 기자 pose007@

## 사학연금, ESG 기반 지역상생 모델 ‘두각’

### 대한민국 창조경영서 대상...사회공헌·기금운용 등 성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기반으로 한 사회공헌과 기금운용 성과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사학연금은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6’에서 ESG 기반 동반성장 및 지역상생 모델 구축 성과를 인정받아 대상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기금 운용과 연계된 ESG 투자 확대,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 추진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연금은 ESG 경영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을 지역상생과 연계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 교육격차 해소

를 위한 인재육성 중심 프로그램과 사회안전망 구축 활동을 병행하며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학사업을 비롯해 공공기관 진로투어, 지식나눔, 멘토링 등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협력해 저소득층 아동 의료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퇴소 청년의 자립을 돕는 등 실질적인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행보를 넓히고 있다. 지역 소상공인 제품 구매 확대, 지역 축제 및 행사 지원,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을 통해 지역 소비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력한 판로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은 “차별화된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역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ESG 기반 책임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통해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나주=조희천 기자 pose007@

## 광주 제조기업 ‘일터 혁신’ 속도 낸다

### 광주상의, ‘융·복합 가전산업 스마트워크업’ 사업 추진

광주지역 제조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체계 고도화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융·복합 가전산업 스마트워크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자율계정)’을 기반으로 광주시 지역주도형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광주 소재 융·복합 가전산업 관련 제조기업으로, 근로환경 개선 의지가 있고 신규 채용을 했거나 계획 중인 기업이다. 재직자 중심의 고용 유지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사업은 크게 인사·노무관리 디지털화, 공동이용시설 개선, 기업진단·컨설팅 연계 등으로 구성됐다. 기업 운영의 ‘보이지 않는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가 체감하는 근로환경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구조다.

우선 HR플랫폼 구축 지원은 근태·급여

·임금 등 인사·노무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전환 사업이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기업에는 최대 500만원이 직접 지원되며, 30인 미만 기업은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인사관리 효율성 제고는 물론 노동 리스크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

공동이용시설 개선 지원도 눈길을 끈다. 휴게실, 식당, 샤워실 등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개선하는 데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근로자 의견을 반영한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최대 12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해당 지원을 받는 기업은 광주교육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에 의무 참여하게 된다. 기업별 인사·노무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등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송대중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 광남일보 국민안전연총캠페인

# 운전할 땐 안전벨트

## 안전거리 · 전방주시 · 벨트착용